

‘미래 사회환경과 의류학’에 대하여

유 태 순 (효성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최근 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환경’ 또는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환경’이란 낱말은 매스 미디어에서조차 그 말이 나오지 않으면 무엇인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때를 만난 용어가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래사회’, ‘생산’, ‘시장’ 혹은 ‘소비’를 지칭할 때도 별 뜻 없이 ‘환경’이란 글자를 붙여 ‘미래사회 환경’, ‘생산환경’, ‘시장환경’, ‘소비환경’이라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미래사회 환경과 의류학’이란 주제에서 ‘환경’이란 낱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토론자로 지명되어 원고를 쓰는 순간, ‘환경’이란 낱말의 해석에 많이 고민을 했다. 이 주제를 발표하신 박광희 교수도 저처럼 주제를 결정한 주최측의 의도를 파악할 길이 없어 무척 당황했으리라는 상상도 해보았다. 만약 ‘환경’이란 낱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미래사회 환경’은 ‘미래사회’를 뜻하게 되어 이 주제는 ‘미래사회와 의류학’이 된다. ‘환경’이란 낱말을 소위 환경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면 이 주제는 환경학에서 말하는 ‘미래사회 환경’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박광희 교수의 발표내용을 읽어보고 저는 ‘환경’이란 낱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관점을 택한 다음 ‘미래사회의 환경’과 ‘미래사회’를 같은 표현으로 간주하여 ‘미래사회와 의류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미래사회와 의류학’에 대한 문제는 지난 '96년 춘계 한국 의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여러 교수들에 의해 심도 있게 다루었고,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와 에스모드가 주최한 ‘21세기 패션 교육방향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도 몇몇 분들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그 후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변화가 많았다. 박광희 교수는 그 점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와 의류학’의 당면문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많이 지적하였다. 특히 (1) 학교교육이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고 (2)

섬유관련 학과와 의류학의 유기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 해야할 뿐 아니라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경쟁력 있는 전문인을 양성해야 하며 (3) 현장교육이 일층 강화 되어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에 역사상 미증유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유사한 주제를 갖고 논의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복되지 않고 적절하게 지적해서 아주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만약 '미래사회 환경과 의류학'이란 주제에서 '환경'이란 낱말을 환경학에서 쓰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했다면, 거듭 말하지만 이 주제는 달리 다루어져야한다. 환경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유엔환경기구(UNEP)의 '유엔 인간환경 선언'에 진술된 내용에 근거하면 환경이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실체'로서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어지고 인간중심의 관점에 입각하면 '주위의 실체'는 사회적 환경보다 물리적 환경을 뜻한다. 특히 '환경문제'라고 할 때의 '환경문제'는 물리적 환경에서의 문제발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환경문제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부산물로서 초래된 마이너스 효용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채취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형태의 물질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인류에게 마이너스 효용을 주는 공해물질(pollutions)과 정체현상(congestion)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설명되고 있는 환경 또는 환경문제와 관련지워 미래사회 환경과 의류학의 문제를 조망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의류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 더 이상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자연과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접근이다. 둘째는 환경파괴로 인해 극심해질 공해로부터 우리 인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직물의 생산과 디자인을 고안하려는 접근이다.

신체보호와 장식은 의복의 중요 기능이지만 그 기능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의류의 생산, 관리, 폐기 과정에서 각종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즉, 그 과정은 생활환경(물, 폐기물, 악취), 인간환경(산업, 에너지, 안정), 자연환경(자원, 대기, 생태계)에 산업공해만큼 막대한 공해물질과 정체현상을 일으킨다. 특히, 자정작용에 의한 정화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의류 생산업체의 특정 지역 집중화와 새롭고 멋진 옷을 입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사치성 그리고 공익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의복행동은 환경문제를 가중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사회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등장 할 것이다. 의류의 생산, 관리, 폐기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과 그 정

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해결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미래사회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의류학의 노력이 첫째 접근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그 어떤 동물보다 인간은 현명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곧 전망하지만 비관론자들은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급작스런 일기변화, 자외선, 이산화 가스, 정전, 나쁜공기, 등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직물의 생산과 그러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과 선택이 미래사회의 환경에 대처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미래사회 환경에 대비하는 의류학이 고려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미래사회의 환경과 의류의 생산 및 소비활동을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화공학과 식품학에서 환경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듯이 의류학에서도 의류산업 및 의류행동을 환경보존, 환경오염과 관련지우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편성을 서둘러야 할 때가 왔다고 한다. 극단적으로 순수 과학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의생활과 환경의 관계를 다루는 과목의 개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